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 북한, 15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위

### 오픈도어, '2017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발표

북한이 15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차지했다. 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반기독교적 세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오픈도어 선교회는 '2017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WL·World Watch List)' 50개국을 공개하고 지난 4년 간 박해지수가 계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박해지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전 세계의 약 2억 1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50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 박해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6개국 중 5개국인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부탄, 베트남은 모두 동남아시아에 분포했고, 이 지역에서 2017년에 새로 순위에 진입한 나라는 스리랑카이다.

현저한 추세는 종교적 민족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을 박해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인도에서 인도인민당이 부상하면서 힌두교적인 민족주의 열풍이 부상함으로 박해순위를 작년 17위에서 15위로 높게 되었다.

북한은 다시 1위를 차지해 15년 연속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평양의 독재 정권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 소말리아(2위), 아프가니스탄(3위), 파키스탄(4위), 수단(5위), 시리아(6위), 이라크(7위)가 각각 순위에 올랐다. [GNPNEWS]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한복음 15:18-19)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해 거룩한 부흥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완성의 영광에 더욱 사로잡힐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나의 사랑 내 신부야



- 파키스탄에서 만난 소녀

**눈처럼** 새하얀 스카프로 머리를 가린 소녀의 미소가 이른 봄처럼 싱그럽다. 수줍게 이마를 가린 듯 물결치는 곱슬머리, 또렷하고 사랑스러운 눈매, 오흘하고 단정한 콧방울. 머리 위로 둥글게 들어 올려 사랑을 표현하는 두 팔은 어쩔 그렇게 상냥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거듭난 신부 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이와 같다. 죄로 인해 비참함으로 절망하는 내게 주님은 아가서의 수많은 고백으로 말씀하신다. '넌 여전히 아름다운 내 신부야. 넌 여전히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부 된 교회를 향해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겹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아가서 1:5, 7:6)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9)

##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당신은 특별합니다. 전혀 동이가 안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인물도 잘났고, 재주도 많은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이는 운동 실력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당신은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론 우울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신가요? 아

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잘난 구석이 없냐고 항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나고 못났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하나님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우열이 있어서, 늘 그것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모든

우위를 점령하면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바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과 비교하고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불행하게 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치관으로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던 당신의 눈물겨운 열심과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에게 당신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예수는 당신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늘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당신은 더 이상 하찮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GNPNEWS]

### INSIDE

**02 뉴스** | 아메리카 미국, 건국이념인 기독교정신이 회복되고 있다

**03 기획** | 현장 리포트 브라질 마카파, '다시복음앞에' 집회로 믿음의 불씨를 지피다

**05 인터뷰** | 이영숙 권사 "믿음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06 특별기고** | 김용의 "제 과부의 통곡,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의 통곡"

**08 종합** | 뷰즈 인 북스 C.H. 스펠전의 <기도의 황금열쇠>

아메리카

# 미국, 건국이념인 기독교정신이 회복되고 있다

### 낙태금지 NGO 지원 금지, 존슨 수정헌법 폐지 등



▶ 지난 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출처: USA toda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사회의 세속적인 정책이 폐기되는 대신 미국의 건국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태를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종교인이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미국이 신앙인의 국가이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정헌법 조

항을 완전히 바꿔서 미국의 신앙 대표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사회는 교회 등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NGO기관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1954년 린드 존슨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이같은 헌법개정을 주도해 존슨 수정조항이 미국 헌법에 삽입되면서부터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이나 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제도가 합법화될 경우, 그동안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적제재를 받던 기독교인도 자유롭게 신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GNPNEWS]

중동

## 카타르, 공사 현장에서 기독교로 개종 일어나

중동의 카타르에서 ‘2022 FIFA 월드컵’ 경기장 공사에 동원된 무슬림 이민 근로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오픈도어를 인용해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카타르는 선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타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로 이민을 해 온 많은 근로자들이 복음을 믿고 개종하고 있다고 오픈도어는 전했다.

경기장 건설에 관련된 일부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몬(가명)이라는 이름의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는 일부 기독교인 근로

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엄격한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 근로자인 아흐메드(가명)는 “난 무슬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서 “나는 동료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 그들은 내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들의 물음에 답해주는 것이다. 이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인 사무엘

(30) 목사는 낮은 임금에 하루 11시간 노동을 한 후 밤에 목회를 하고 있다. 그는 오픈도어와의 인터뷰에서 “카타르에서 만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GNPNEWS]



아시아

## 스리랑카, 불교계 폭도들이 교회 파괴

스리랑카 북부 파하랄리아 지역의 한 교회가 지난 1월 불교 승려의 지휘를 받는 괴한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매일선교소식이 최근 전했다.

이 교회 카말 와산타 목사는 “그들은 나무 몽둥이와 쇠파이프, 칼 등으로 무장하고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며 우리를 거칠게 위협했다. 교인들이 교회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이번 공격을 받기 전에

도 잦은 협박을 받았으며, 사소한 일로 민원을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곤 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사를 벌여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승려 1명과 12명의 괴한들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모두 보석으로 석방했다.

자신이 섬기던 교회 기도센터가 폭도들에 의해 완파된 경험을 가진 목사는 이 같은 이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된다고 말했



▶ 스리랑카의 교회가 파괴된 모습(출처: Banabasfund)

다. 그는 “어떤 공격도 교회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나무 아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7 ~ 2.9)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호주 가톨릭 교회 성추행 피해 아동 4444명...사제 가해자 572명

호주에서 지난 45년 동안 가톨릭 사제 및 관계자들에 의해 성추행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 피해자가 무려 4444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 약 2000명 중 572명이 사제이다.

인간의 정욕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자들을 주의 긍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해자들 또한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 콜롬비아서 30명 이상 살해한 마약조직 리더 알고 보니 17세

남미 콜롬비아에서 30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작은 콩’으로 불리는 17세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최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경찰서장은 “용의자는 17세에 불과하지만 30여 건이 넘는 살인을 일으킨 위험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오 하나님 열방의 다음세대 가운데 드러난 비참함을 보시옵소서. 참으로 악독한 사건들을 저지른 17세 소년에게 세상은 ‘격리’밖에는 줄 수 없지만 주님은 참된 복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소서.

#### 체코계 선교사, 수단서 ‘첩자’로 몰려 종신형

수단 하르툼(Khartoum)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다 ‘첩자 활동’을 했다고 몰려 종신형에 처한 체코계 기독교인을 위한 구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31일 한국순교자의소리가 전했다. 체코계 기독교인 선교사이자 50대 중반의 피터 야섹(Petr Jašek)의 진짜 ‘죄목’은 데모를 벌이다 크게 부상 당한 한 학생을 도와준 것이었다고 한다.

하나님 좁은 길을 걷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터 야섹 선교사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을 통해 체코 땅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 슈퍼리치 8명이 세계인구 절반과 같은 부 소유

세계 최고 갑부 8명이 소유한 재산이 세계인구 절반의 재산 총합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발간한 보고서 ‘99%를 위한 경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빈익빈 부익부’는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경제체제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영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완전한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자족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들려주시길 기도합니다.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2월 3주 ~ 2월 4주

- |                                      |                                      |
|--------------------------------------|--------------------------------------|
| <b>2월 3주(2.20~2.25)</b>              | <b>2.27~28, 3.1~2(10~12시)</b>        |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은선) 061-271-9981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 <b>2.20~24(14~19시)</b>               | <b>2.27~3.3(14~19시)</b>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
| <b>2.20~21,23~24(10시~12시)</b>        | <b>2.28~3.3(06~12시)</b>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전북 전주 / 전주시향교회 (정**) 010-8295-6889  |
| <b>2.24(08시~20시)</b>                 | <b>3.3(08시~20시)</b>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 <b>2.24~25(22시~22시)</b>              | <b>3.3~4(22시~22시)</b>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2월 4주(2.27~3.4)**

▶경기 성남 / 선한목사교회 (유\*\*) 010-3689-7133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현장 리포트

# 브라질 마카파, '다시복음앞에' 집회로 믿음의 불씨를 지피다

## 아마존강 하류에 위치, 3000여 개의 강변 커뮤니티가 선교대상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된 아마존 강이 대서양과 만나는 위치에 있는 브라질의 아마파 주(州)의 주도 마카파 시(市). 최근 이곳에서 복음과 기도를 믿음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곳에서 십수 년째 사역하고 있는 윤영목 선교사가 현지 소식을 전해왔다. <편집자>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이곳 브라질 아마존 강가의 마카파에서 그동안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결단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올해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을 맞는 이곳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5대 강령을 주제로 '다시복음앞에' 집회를 가진 것이다. 이는 38%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토속신앙과 기복신앙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로 인해 믿음의 진보가 쉽지 않은 이곳 성도들의 한계를 넘어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됐다.

매일 두 번의 찬양 예배와 5대 강령을 주제로 김재영 선교사, 이은숙 선교사, 윤영목 선교사 등 세 강사의 강의와 말씀기도로 이어졌다. 모두 12차례의 강의와 8번의 조

별 말씀기도에 이어 마지막 시간에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총 46명으로, 지난 2년간 4차례에 걸쳐 포르투



갈어 현지어로 진행된 복음학교에 참여했던 형제 자매들이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말씀기도를 통해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절감했다. 또한 나는 연약하지만, 매 순간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복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에 기

대어 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큰 은혜였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오직'이라는 단어의 무게



를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한 형제는 "교회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면서도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이제부터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또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한결같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를 지는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곳 현지 형제 자매들의 입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들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다시복음앞에' 모임을 진행하면서 누린 큰 은혜는 살아서

시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이같은 믿음의 결단에 이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들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한다.

인구 50만 명의 마카파는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된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마지막 구역을 자리 잡고 있다.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이곳은 아마존 강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강변 커뮤니티에 대한 선교적 소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아마존 강 전체에 존재하는 강변 커뮤니티는 줄잡아 3만3000여 개로 추정된다. 이들 커뮤니티의 규모는 작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0여 명에 이른다.

이곳은 강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마지막 구역으로 최대 강폭이 무려 40킬로미터로, 거주하는 강변 커뮤니티도 무려 3000여 개에 이른다. 이 지역은 도로가 없어 스쿨 버스 대신 스쿨 보트로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열악한 생활환경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섬기는 성도들은 선교 선(船)을 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십자가 복음을 붙잡은 이곳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지역 다음세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와 목회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 [GNPNEWS]

글·사진=윤영목 선교사

월드 뷰 World view

## 낙태 반대 여성은 '여성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

### 美 여성인권 대규모집회에 낙태반대 단체들은 참여 자체가 거부돼

최근 미국에서 '여성의 권리와 안전, 건강, 가족에 대한 보호'를 위한 대규모 여성집회에 낙태 반대 여성들은 제외됐다. 최근 미국 기독교 문화 평론가 짐 데니스 박사의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에서 20만여 명의 여성이 참여한 대행진에 낙태반대 여성들은 함께 하지 못했다.

이번 행진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법적이며 적절한 낙태와 산아제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이번 행사의 후원기관에는 전미가족계획협회, 임신중절 아메리카 재단, 전미 낙태연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낙태반대 단체도 이 행진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낙태찬성 진영에서 '여성 운동은 낙태의 권리 수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낙

태반대 진영의 참여를 격렬히 반대했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있을까?

수잔 B. 앤소니, 엘리자베스 케 이디 스탠튼, 메리 웰스톤 크래프트, 루이자 메이 알코트 등은 모두 초기 여성운동을 이끈 선구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낙태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낙태반대 진영을 반(反)여성운동자들로 폄하하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여성에게 최선의 것을 바라고 있다. 낙태 반대주의자들은 낙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성의 생명을 단절할 뿐 아니라, 산모인 어머니와 사회에도 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

낙태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보

면, 로우 대 웨이드 판결(1973년, 낙태 허용 판결) 이후 미국에서 약 5800만 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이중 1200만 건은 지금쯤 아이 어머니가 되었을 법한 여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어머니가 되었다면 태어났을 또 다른 1200만 명의 생명의 가능성까지 고려해보면, 총 7000만 명의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다. 미국의 1인당 GDP가 5만3000달러임을 감안해 7000만 명의 생명이 사라진 것의 경제적 손실은 약 3조7000억 달러로 전체 GDP의 약 20%에 해당한다.

여성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선 어떠한가? 낙태 반대는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호한다. 부모님, 아이의 아버지, 친구와 동료 등이 오히려 가장 취약



▶ 낙태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출처: 데니스 포럼)

한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며 압박할 수 있다.

왜 정부가 여성에게 태아 출생의 선택권을 부여하면 안될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어머니뿐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의 출생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낙태뿐 아니라 유아 살해와 안락사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낙태 반대주의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입

양을 지지한다. 또한 낙태 반대주의자들은 낙태 시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대로 원치 않는 아이라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살아 있는 것이 낫다고 믿는다.

앨리스 폴은 1923년에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을 작성한 사람이다. 그녀는 "남녀평등의 원칙이 정부 체제 안에 명문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며, 낙태에 대해 "여성에 대한 궁극적 착취"라 표현했다. 과연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최근의 워싱턴 여성 행진을 환영했는지 궁금하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파키스탄 선교 역사 (4)

## 파키스탄 기독교,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부흥 경험

무슬림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역사는 그리 폭 넓게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3% 수준. 그것도 19세기 후반 불가촉천민 계급인 '추흐라'를 통해 집단개종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후의 상황을 파키스탄에서 30년간 사역한 영국의 프리다 캐리 선교사(Church Mission Society 소속)가 정리한 자료를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 캐널 컬러니(canal colony)로 이주

1880년대 추흐라 계급의 엄청난 회심자들로 인해 미국합동장로교회(UP) 선교회의 방향과 교육 사업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상류카스트에서 불가촉천민(손이나 발이 상대편 몸에 닿으면 안되는 사람들, untouchable)에게로 선교 지역과 대상이 달라졌다.

이후 1890년대, 추흐라 복음운동은 영국식민정부의 '캐널 컬러니(canal colony)' 정책으로 또 한 번

의 전기를 맞았다. 영국은 인구밀도가 낮고 황무지였던 편자브 서부지대에 물을 대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수로를 건설했다. 그리고 편자브 중부 지역의 인구밀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자들을 이 지역으로 보내 정착하게 했다. 이때 무슬림, 시크, 힌두 지주의 농장에서 일하던 많은 추흐라들이 주인을 따라 이주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기독교인이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체나브와 라비 강 사이에 걸쳐 있는 장바(Jhang Bar) 지역으로 이주했다. 선교사들과 목사들도 비기독교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 기독교 이주자들을 따라 새로운 수로 주변에 형성된 캐널 컬러니로 왔다. 이 지역에 있던 비기독교 추흐라 계급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교회는 계속해서 커져갔다.

정부는 새롭게 조성된 캐널 컬러니에 땅이 없는 추흐라 회심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선교 단체에 토지를 할당해 주었다. 1898년, 정부는 당시 그곳에서 사역



▶ 지난 2011년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위해 열린 시알코트 대회 모습(출처:CMS)

하던 선교회(Church Missionary Society)에 땅을 주었고, 장바 지역에는 몽고메리알라와 이사 나그리라는 기독교 마을이 세워졌다.

스코틀랜드 국교회(the Church of Scotland)와 연결된 기독교인들이 세이쿠피라에 있는 영소나바드의 캐널 컬러니 마을에 정착했다. 마니푸르 근방에 있는 UP 마을 쿠시푸르의 가톨릭 마을 등도 같은 때에 자리를 잡았다. 1914년에서 1930년 사이, 라비 강 남쪽 새로운

땅에 다양한 선교 단체의 지원 아래 9개의 기독교 마을이 더 생겼다. 수천 명의 충성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추흐라들이 이 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했다.

### 정부, 이주한 기독교인에게 토지 제공하기도

교회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은 1896년과 1904~10년에 일어난 대부흥 운동(영적각성운동)을 통해 일어났다. 1896년 대부흥 운동은

주로 교회의 리더, 목사 그리고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1904년에 시작된 대부흥 운동은 인도판 '케직'(19세기말 영국의 부흥의 중심에 있던 도시)이라고도 불리는 시알코트 대회를 통해 전 교회로 확산되었다. 이 대회는 처음 2년 동안은 선교사들과 국가 관련 직원들만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06년부터 모든 교파의 일반 기독교인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짐을 느꼈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추흐라 배경의 신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열심은 훗날 회심하지 않은 추흐라들 가운데 교회 성장의 열매를 맺게 했고, 이미 기독교인이 된 신자들에게는 더욱 영적인 삶을 살도록 했다.

1900년에서 1930년은 파키스탄 교회사에서 전례 없는 성장의 시기였다. 단지 수적인 증가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 <계속> [GNPNEWS]



### 선교 통신

## K국 하로샤 “고국에 돌아가 가정교회를 세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국도 올해는 춥다고 하는데 이곳 시베리아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춥다기보다 오히려 상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중앙아시아 K국에서 현지인 복음학교가 열려 이곳 러시아와 A국에서는 저희가 돌보고 있는 선교사 자녀까지 모두 9명이 참여했습니다. 알타이에서 일어난 부흥의 씨앗들인 저희 형제들 안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목적 삼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T국에서 온 하로샤(가명) 형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이 형제의 부인은 얼마 전 셋째를 출산했는데 얼마 후 아이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무슬림 친척들은 “네가 예수를 믿어서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며 하로샤에게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복음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많이 울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하로샤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무슬림이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총부리로 얻어맞고,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

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로샤의 아버지는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믿음이 약한 어머니와 무슬림이었던 외가의 영향으로 하로샤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희와 함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

“  
복음을 들은 형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지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의탁할 때,  
형제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었고, 주님은 형제의 순수함과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이 된 하로샤는 병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여동생 둘과 자폐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딸을 낳았지만 모두 귀가 들리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셋째마저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마저도 믿음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로샤 형제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저희도 그를 복음학교로 초청하는 일에 정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형제는 복음학교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복음을 들으며 이제 더 이상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겠다고 고백하는 형제를 보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운 형제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의탁할 때 형제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GNPNEWS]

러시아 L, K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믿음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영숙 권사(선한목자교회)

이영숙 권사는 본지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했다고. 지금도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 지금도 100% 전심으로 못 나가잖아.’ 그러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더욱 사실이다. 평생 두려움에 종노릇하던 그런 나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언제였나요?

“저는 두 살 때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신학공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김천의 한 기도원에 들어가 살게 됐죠.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살다보니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는 것이 너무 좋게 느껴져 주님께 시집가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사업을 하신다는 이유로 기도원을 나왔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가르쳐주는 고등공민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사춘기를 앞둔 저는 결국 열여섯 살에 집을 나오게 됐어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싶어 무조건 직업소개소를 찾아가했어요.”

### 고된 삶을 벗어나려고 한 결혼

- 열여섯 나이에 직업소개소를요?  
“네. 처음에 소개 받아서 갔는데 저에게 화장을 시키고 옷을 입히더니 쇼윈도에 앉혀놨어요. 그때까지 기도원에서 살다 보니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어요. 욕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유행가만 불러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 앉

아있는데 여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 이후, 가게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갖가지 공장들을 다니며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모두 집에 보냈어요.”

-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엄마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피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본 5남매의 맏딸이에요. 월급을 받아 엄마한테 갖다 주면 그것으로 장을 보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기도 했지만 나중에 복음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사실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사는 지 전혀 모르셨어요. 어린 딸이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물어보실 만도 한데 삶이 너무 팍팍하셔서 그랬는지 묻지 않으셨죠. 한편으로 저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을 떠난 지도 오래였어요. 편하게 잠 좀 자보고 싶었어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스물여섯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알콜중독자더군요.”

- 결혼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때부터 또다시 용광로 같은 고통의 삶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매일 술을 먹었어요. 매일 싸웠죠. 이혼하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친정에 갈 수도 없었고. 게다가 남편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면, 과거의 어려움들이 생각나면서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도 갔다가 이웃집,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어요. 버려진 인생 같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남편도 이렇고... ‘왜 나는 이혼도 할

수 없을까?’ 생각이 들면서 자살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쥐약을 구해 먹고 누웠어요. 그런데 두 살된 큰 아이가 저에게 기어오는 거예요. 순간 내가 죽으면 씩기밖에 더하겠나, 살면 이 아이 콧물이라도 닦아 줬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쥐약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달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 예배를 통해 지난 삶에 대해 회개

- 하나님이 기적같이 목숨을 살려 주셨네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의 삶에 대해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남편은 변한 게 없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너무 사랑하면 심장이 아플 정도까지 되는 거 아세요? 주님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얼마 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며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기도원에서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술도 끊고 하루에 서너 갑씩 피우던 담배도 끊게 하셨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권사가 되기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렇게 10년 정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2010년에 남편이 암으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됐어요.”

- 상심이 크셨겠네요.

“처음에는 이상하게도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고 이전처럼 모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았어요.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나가면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 싱크대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서 밥을

안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병원을 찾아가는데 우울증과 대인공포증이라고 했어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겠다고 권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어떻게 극복하게 되셨어요?

“교회의 한 장로님이 지나가는 말로 “복음훈련을 받아봐. 좋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4년 동안 갇혀 살았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2015년 3월에 복음훈련을 받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자아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자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의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러자 복음을 더 알고 싶었어요. 강릉에서 서울로 일주일에 한 번 중보기도학교를 다녔어요. 강의 내용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내 영혼이 살 것만 같았어요. 훈련 마지막 과정으로 해외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을 때, 2주 이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아픈 것도 사실이었지요. 아픈 몸을 이끌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누워있기를 반복하며 아웃리치를 마칠 수 있었어요.”

-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셨군요. 아웃리치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선교훈련 등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훈련을 받을 때는 변한 것 같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이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제 삶을 돌아봤어요. 주님보다 사업이 항상 우선 순위였어요. 그런데 사업은 본사에서 맡릴 정도로 잘됐어요. 하지만 돈보다 주님을 택하기로 했어요. 잘되는 사업을 접고,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아들네 자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로 하고 저를 불러주시는 어느 곳이든 가서 섬기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의 고백은 점점 화려해져 갔지만, 저의 삶은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고 고백했지만,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판단

하고 연합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나를 부인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이 내게 없었어요. 저는 사업도 포기하고 30년을 살아온 터전과 그곳에서 쌓아온 모든 관계도 버린 줄 알았는데 실상 버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성질과 자존심,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던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거였어요. 문제는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짙은 화장을 한 창녀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훈련을 받는 날이 더할수록 성경적 언어와 화려한 표현으로 나를 포장해서 기도하고 섬기지만 실제로 저는 썩어 문드러진 송장 같았어요. 거기까지 가보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왜 부르셨나. 난 드릴 게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 ‘자존심 놓치 못하는 나’를 발견

- ‘나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군요. 감동이 되네요. 그 이후 어떤 헌신의 걸음을 걷게 되셨나요?

“그저 한 걸음씩 발을 떼었어요. 주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데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남편이 죽고 난 이후, 큰딸에게 제 마음의 전부를 주고 있었나 봐요. 딸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차마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서 복음훈련을 받고 오면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요. 딸은 회사 현장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서 한 주간씩이나 비우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휴가를 내더니 복음훈련을 다녀오는 거예요. 결국 저의 악독했던 마음을 딸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 그 덕분에 온 가족이 복음 앞에 서게 됐네요.

“사위도 결혼 후 복음훈련을 받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위가 복음훈련에서 그치지 않고 선교훈련을 받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아웃리치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자녀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와 대화가 되는 것까지 좋은데 사표까지 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사사시대에 빛난 복음 (2)

# “세 과부의 통곡,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의 통곡”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룯은 그를 붙잡았더라”(룻 1:14)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통곡한다. 비단 아들 뿐인가? 인류 역사에 인간의 통곡이 많았는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들은 모두 결혼한 경험을 갖고 있다. 행복을 꿈꾸었다는 말이다. 행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존재적 욕망이다. 하지만 행복은 ‘절대’ 이를 수 없는 꿈이다. 혹 이룬다 해도 인간은 존재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행복은 신기루와 같다. 세 과부의 통곡은 그들만의 통곡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의 통곡이다.

세 과부는 믿을 수 없는 것, 결코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 바로 죽은 남편들이었다.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의존적 존재였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그 대상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행복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만족은 오직 영원하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

### 주님이 말씀하고픈 복음

한때 베들레헴에서 잘 나가던 나오미의 처지는 지금 꺾인 가지, 물이 마른 강과 다를 바 없다. 두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세 과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들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이라면 너무 슬프다. 만약에 이런 드라마를 보다가 결말이 이것뿐이라면 차라리 보지 말았어야 한다. 근데 세 과부처럼 통곡하고 있는 인류에게 주님은 자신 있게 룯의 이야기를 내미신다. 왜냐하면 주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편에서 거덜 나고 끝장난 그때에도 주님 편에는 말씀하고픈 복음이 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고 했던가? 사사시대

한가운데에서 복음은 더욱 돋보였다. 울던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결국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같은 모암 족속이었던 룯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고백이 나온다.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이것이 단지 인류에서, 인간의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가? 아무리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동원한다 해도 말이 안 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사시대, 도대체 이방 여인 룯은 무엇을 보고 들었던 말인가?

룯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다 망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간 오르바도 봤다. 하지만 오르바는 눈에 보이는 것



만 봤다. 그녀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그저 가련한 여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룯은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진 그 때 보이지 않는 실재를 보았다. 비록 나오미는 비참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했지만 여호와 의 신앙과 언약은 여전했다. 나오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진리 그 자체는 영원히 완전하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잘못 선택한 그 길에서, 더 큰 흥년을 만나

완전히 실패한 여인처럼 남았지만 천하에 그 어떤 여인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녀는 소유하고 있었다. 복음이었다!

언제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 목숨 걸 복음이 그대에게 있는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일 뿐이다!(2016.4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prayermedia

## 경건의 열망 오디오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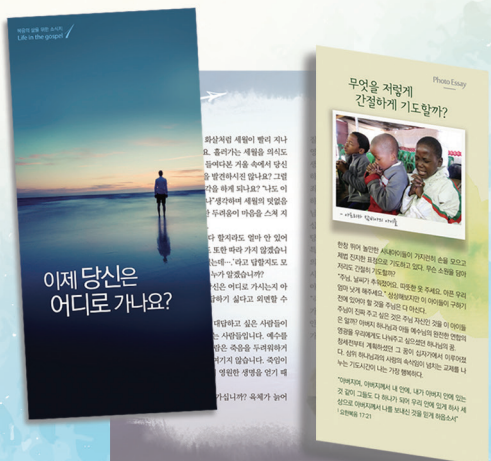
“나에게는 하나의 소원밖에 없다. 그것은 주님이며, 주님 밖에 없다” \_진젠드르프의 고백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꿈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분의 꿈이 나의 꿈,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_메시지 중에서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Life in the Gospel



###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5,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까지 순종하겠어요”

“어느 날 사위가 ‘어렵지 않느냐’고 묻는데 제 마음이 다 드러난 것 같았어요. 그동안 복음으로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믿음의 선배 역할을 했었는데 믿음 없는 게 들들났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이면 다시, 내가 지금 뭘 바라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이런 사건들로 저를 완전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최근 한 사건을 통해 주님은 제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느 주일 아침, 병원에 있는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죽고 싶어.’ 또 쓸데없는 소릴 한다며 예배 끝나고 통화하지고 전화를 끊었어요. 몇 시간 동생이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고통하며 살다가 자기 스스로 도박을

끊을 수 없다며 자진해서 폐쇄 병동에 들어간 동생이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오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밤새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었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영원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숨겨 놓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든 관계치 않고요. 복음을 알기만 하는 것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멀고 다른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삶에서 실제로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까지 어디든 순종하며 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Y.K.



# 국내 아웃리치 통해 “이 땅 사랑하시는 하나님 발견”

아웃리치 팀장으로서 준비 기간 동안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팀원들을 보며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왜 나를 팀장으로 부르셨는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을 다루셔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셨다. 출발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아웃리치 첫 시작은 새해 첫날 밤이었다. 자매들끼리 전주에서 서울까지 운전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곧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함을 되찾게 하셨다.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그리고 한국의 주요 신학교들을 둘러보며 기도하게 하셨다. 말씀을 따라 찾

아간 작은 지하교회에서 머물며 사모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에게 찾아온 ‘타카야수 동맥염’이라는 희귀병은 힘겨운 싸움이지만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다.

## 시골에서 독거노인 심방하며 전도

이후 충남 서산으로 내려와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분들을 섬기는 ‘전능자의 그늘 미니스트리, 쉘(ShAM)’이라는 공동체를 만나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껏 나와 내 가족만을 위했던 삶이 부끄러웠다. 믿음의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와 헤브론선교대학이 어떤 과정으로 세워졌는지 들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획하심에 놀라게 되었다. 주위 교회들을 방문하는 중 전도의 열정이 남다른 목사님을 만나



함께 가가호호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시골집 대부분은 연로한 노인 한 분씩만 살고 계셨고, 우리가 찾아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셨다. 마음이 짠하고 먹먹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바라셨지만, 입술이 둔하다는 핑계로 얼마나 복음 전함을 주저하고 싫어했는지 알게 하셨다. 정말 부끄러웠다. 이곳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의 일상의 모습은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는 듯했다.

이어 부산으로 향했다. 안내해주시는 목사님과 바쁜 일정들을 보내며 교회, 학교, 병원, 공원 등 부산

곳곳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사역하셨는지 역사적인 부분들을 듣고 자료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안내해주시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특별히 중앙아시아에 마음을 두고 계셔서 교회에는 이주민들로 가득했다. 따님의 능숙한 통역으로 예배는 은혜로 충만했다. 오후에는 관광 명소인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을 돌며 기도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쏟아진 곳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만 가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더

욱 소리 높여 기도했다.

다음 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들러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고 들으며 가슴이 찡해왔다. 어떤 고문에도 믿음을 지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자식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다. 복음에 빛진 자로 열방을 향하여 동일한 은혜를 나눠야 함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침마다 허락된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고, 또 마지막을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시는지 알게 되었다. 주님 영광을 날마다 바라며 하나님 나라와 선교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웃리치 이후의 삶도 동일하게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 주님이 하셨다! [GNPNEWS]

김진희 사모

## 부흥을 위하여

# “인민재판으로 처형 당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내가 열일곱 살 되던 해인 1973년 11월 30일이었다. 오전 11시에 신흥군 안전부로부터 갑자기 공설운동장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읍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학생이건 노인이건 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설운동장으로 모였다. 도착해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인민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 끌려온 세 명의 노인들

오후 2시쯤 되자 짐칸을 포장으로 둘러친 트럭 한 대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군중 앞에 멈췄다. 이어서 안전원들이 달려와 트럭에서 세 명의 노인들을 끌어내렸다. 그리고 25톤급 프레스가 차에서 내려져 운동장 한쪽에 설치되었다.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 그 재판은 신흥군 당위원회 안전부가 주최했는데 지도는 평양중앙재판소의 지도성원이 직접 맡았다. 세 명의 노인들은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참으로 보기에 딱하고 안쓰럽기



▶ '완전통제구역' 14호 정치범 수용소를 그린 그림(출처: Human Rights Watch)

그지없었다. 그런데 세 명의 노인들 가운데 하나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다. 기력이 모자라 그런지 아니면 목이 쉰 탓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기도하는 음성은 옆사람에게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 노인의 기도가 끝나자 다른 두 명의 노인들도 ‘아멘’하고 입을 모았다. 놀랍게도 그 노인들의 표정은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다. 내가 남한으로 와서 알게 된 것은 그 노인들이 이미 순교를 결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들의 기도가 끝나자 군중들 가운데 선동대원으로 보이는 몇 명의 청년들이 ‘처단하라! 처단하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가 신호

인 듯 또 다른 청년들이 노인들 앞으로 나와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윽고 중앙 재판소에서 내려왔다는 지도원이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동무들! 아버지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해 전체 인민이 하나같이 단결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를 믿는 악독한 자들이 우리 공화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요. 놀랍게도 아직 저 반동 종교인들이 남아서 지하활동을 펴왔다고 하니 이들은 종교라는 아편에 중독되어 저들만의 쾌감을 즐겨왔던 게 분명하오! 그렇다면 저들의 골통 속에 과연 뱀이 들어 있는지 이제부터 우리 다같이 관찰합시다.”

그의 연설은 처음부터 극한적인

잔인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우 선동적이었다. 세 명의 노인들이 거기까지 끌려오게 된 것은 위생 검열단의 검열과정에서 성경책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 집에서 은밀히 집회를 갖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검열단에 의해 성경책을 빼앗기고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 집행된 인민재판

안전원들이 달려들어 노인들을 철관 위에 눕히고 머리를 압축판 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때 다시 군중 속에서 선동적 외침이 나왔다. “저 인간쓰레기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작동!”이라는 구령과 함께 안전원들이 스위치를 눌렀다. 25톤급 프레스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압축판이 점점 조여들고 노인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짓눌렀다. 주민들은 한동안 몸이 굳어진 채로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상당수의 부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렇듯 1970년대 초부터 1976년까지 여러 곳에서 비밀리에 하나님을 섬기던 기독교인들이 김일성 집단에 의해 무참히 처형을 당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 나의 소망

### “네가 주의 종이 되었구나”

많은 방황 끝에 예수님을 만난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는 387년 4월 부활절에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 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열병에 걸려 9일 만에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 모니카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육신의 삶에서 어떤 기쁨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보려고 애쓴 이유는 한 가지였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뤄주셨구나. 네가 세상의 쾌락을 경멸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이루었구나.”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C.H. 스펠전의 <기도의 황금열쇠>

# “말주변이 없어 기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는 일에는 몇 분도 아까워하는 악한세대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기도 없이도 화려한 예배당을 가질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늘의 기름부음은 기도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명령하신다

책을 읽으며 목사님의 육성을 듣는 것 같았다. 어느새 꺼져버린 냉랭한 나의 가슴에 기도의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기도의 황금열쇠로 하늘 문을 열라! 불과 같은 열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스펠전은 뜨겁고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일 수 없다고 강조하여 말한다.

기도는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시당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자발적으로 찾아가 그것을 누리려 할 것이다. 하물며 무료병원도 그러한데 기도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자발적으로 기도의 유익을 누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다. 왜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무언가에 단단히 매여 있어서 명령하지 않고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기도가 의미 없다고 속일 때, 말주변이 없어 기도하기 어렵고 여전히 무언가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조언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이 명령에 근거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담대히 우리의 배고픈 영혼의 소망을 쏟아내며 얻어지는 은혜를 누리 수 있다. 명령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어미를 잃은 까마귀 새끼의 생명을 건 울음을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볼 수 있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여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주시다고 강조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자체, 구세주의 심장 근처에 난 가장 깊은 상처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이며 마음의 진실함과 또한 겸손함이 담겨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상한 심령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파도로 부서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드러지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내린다.

### 하나님은 자녀의 울부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기도하라! 저자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다는 소식

을 듣고 수개월 간 열렬하게 끓어오르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왕의 질문을 받게 된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느 2:4) 탄성을 지르는 기도는 그 짧은 틈에도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듯이 단번에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다. 일상에서 언제 어느 때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에 수십 번, 수 백번 우리 주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연을 때나, 잃을 때나, 역풍이 불 때나, 순풍이 불 때나, 끊임없이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다. 선한 일하기를 열망하는가? 먼저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GNPNEWS]

우미영 선교사

바빠진 사역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함보다 어느덧 내 생각이 커져 있었다. 이려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나를 주님은 이 책으로 깨우셨다.

스펠전 목사는 당시 섬기던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며 세상 욕심을 얻기 위해서는 몇 년을 노력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기도하

## 10 십자가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말씀기도의 자리,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로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암 8:2)

히브리어로 과일 한 광주리와 끝(케츠)의 발음이 비슷하다고 한다.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 과일 한 광주리였을까? 아니다. 아모스에게 끝을 보여주신 것이다.

처음 복음 앞에 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어느덧 나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충분히 들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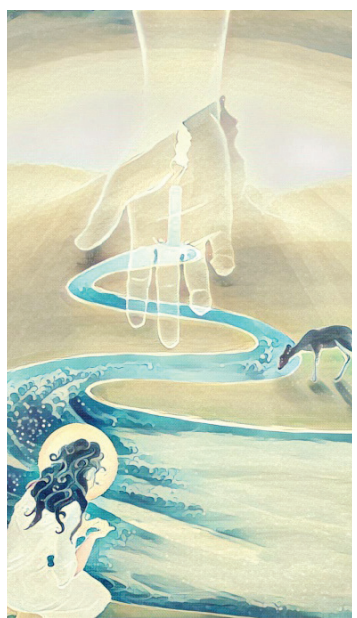
“내가 목마르다”(요 19:28)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지만 더 목마라하셨다. 그러나 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았다. 그 시절 말씀기도의 자리에 어느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다른 이들이 보면 순종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음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여도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허무함과

무력감이 있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있었으나 나의 심령은 말씀의 기근이었다. 주님은 나를 한 합숙 훈련학교로 인도하셨다.

훈련 첫날 목상시간.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날,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다(요 20장). 그때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께 “랍오니”하고 대답하는 말씀을 보던 중에 알아듣지 못하고 갈망함이 사라진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수많은 잡다한 지식이 쌓여 교만해진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끝점을 보여주셨다.

아모스가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환경이 끝나면 내 안에 무력감이 찾아왔던 것이다.

끝점이 흐려져 있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로 과녁에서 빗나간다는 뜻이다. 결국 난 끝이 다른 하마르티아를 저지르고 있었다. 끝점이 흐려지면 결국 그 끝의 화살표는 나를 향했다. 은혜받는 나, 순종하는 나, 기도 잘하는 나, 말씀을 잘 보는 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꽃대를 바라보고 있



었다.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일 한 광주리가 아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끝 날’이었다.

### 주님 다시 오시는 ‘끝 날’을 붙잡다

다시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셨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꽃대를 보게 해주셨다. 성경 구절구절마다 ‘선교완성의 그 날’에 사로잡혀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 나와 우리의 원함보다 더 간절

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었다. 그러자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함을 부여주셨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실제로 믿어졌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주님이 진정으로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였다. 기도예 생명을 걸 것을 결정하게 하셨고 기도가 나의 호흡이고 곧 사역이 되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몬 1:22)

오늘도 주님의 숙소를 마련하는 자리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처소가 되기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세대에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신부로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GNPNEWS]

최경습 선교사

###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7. 1. 20 ~ 2. 9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성훈 김승수 김유남 김은영 박숙자 박은길 신미숙 안은경 오성애 윤혜균 이정희 이지영 이현희 인성은 전만규 정영숙 정해정 조경미 조남미 조명숙 조형광 주유순 최선준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문화행동아트리 산돌교회 새순교회 서경산업 순회선교단다음세대팀 전능자의그늘미네스트리 시은교회 열매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트리니티소프트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대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